

부자와 거지 나사로

신학박사 조 덕운

[누가복음 16:19-31]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20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현대 투성으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21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현대를 핥더라. 22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문히게 되더라. 23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25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이, 너는 네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26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27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28 내게 다섯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 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29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30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31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이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을 포함한 군중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사후에 꼭 가게 되는 두 군데의 종착역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지옥과 낙원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자세하게 묘사한 유일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교훈들을 잘 묵상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1. 지옥과 낙원은 모든 인간의 영혼들이 죽음 후에 가게 되는 유일한 종착역이며, 한번 두곳 중 한곳에 가게 되면 우리의 처지를 바꿀 수 없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이 두곳 사이에는 커다란 골짜기가 있어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갈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간 영혼을 위하여 어떤 헌금이나 기도를 하더라도 그의 영혼이 천국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2. 이 부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이 그의 사후 처지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다닌다고 겉으로 치장하는 기독교인들도 그것이 사후의 처지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느끼는 후회와 뜨거운 고통을 천국에 있는 어떤 지인도 해소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3. 지옥에 가게 된 부자는 그의 물질적 소유 때문에 지옥에 간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2 장 13-21 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묘사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처럼 소유만 풍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부요함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부자로서 하나님께 신실하며 하늘의 지혜에 따라 가진 것을 베풀면서 살았던 '현명한 부자'들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들에 대하여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풍부하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한다면 이 이야기에서 지혜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
4. 부자가 느끼는 회한과 뒤늦게 얻게된 지혜는 너무 늦어서 살아 있는 친족들에게 전달될 수 없으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경 말씀이 있어서 그 지혜를 얻기에 충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 하며 우리의 영원한 장래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갖게 되기 바랍니다.
5.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속의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1 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를 다시 살리신 이적에 대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요청한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게된 사람이 바로 나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삶으로 내어 보내어 여러 사람들이 믿게 되도록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째에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수백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사람들이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던 회개하는 강도에게 그날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42-43]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43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는 낙원에 있던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즉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에 주 안에서 죽게되는 모든 참된 크리스찬들의 영혼은 이제 땅 속에 있는 낙원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영광중에 계시는 천국으로 직접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8-10]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9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이제는 지옥과 천국 간에 존재하는 분리의 골은 이 이야기의 때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커다란 분리의 골짜기에도 불구하고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은 천국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고 있는 복된 영혼들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놓친 기회와 죄들에 대한 뒤늦은 후회와 고통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도 이를 감해 줄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 주신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자신들이 죽자마자 당면한 영원한 목적지를 미리 보고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에 현명하게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은혜와 자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회환과 마음의 처절한 고통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권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 하지 않는 모든 영혼들이 가야만 하는 지옥을 준비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선택의 심각성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 이끌고자 하는 원수의 편에서 떠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게 도와주소서! 아멘.”

www.douglaschoministry.net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Douglas Cho Ministry, PO Box 501, Cross Junction, VA 22615

Or Paypal to dwcho4771@gmail.com

한국: 신한은행 110-008-655930 [조덕운]